



세계양궁연맹 총회가 전세계 105개국 양궁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광주시제공

## 세계양궁연맹 총회, 광주서 개막... 윤리·행동강령 등 논의

세계 105개국 양궁 대표단이 광주로 집결, 문화·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국제 외교무대가 열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양궁연맹 총회' 본회의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세계양궁연맹 우르 에르테네르 회장, 요르그 브로갑프 수석부회장, 톰 톨린 사무총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국제 양궁선수 및 팀원 자격 규정 ▲임원단 선출 ▲심판 조직 절차 ▲윤리 및 행동 강령 법률안 발의 등 양궁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지난

세계양궁연맹총회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전통공연·자원봉사 참여로 광주 문화·시민역량 알리

1일 이사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3일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차기 세계양궁연맹 회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세계양궁연맹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장·숙박·수송·문화공연·자원봉사 등 5대 분야에 걸쳐 철저히 준비했다. 8월 29일 우르 에르테네르 세계양궁연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입국하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세계양궁연맹총회를 통해 스포츠 외교뿐만 아니라 지역 문

화 콘텐츠 홍보에도 주력한다. 개회식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전통공연을 선보였으며, 3일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 오프닝 쇼 '활의 나라'에서는 고싸움 놀이, 농악패 행진 등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행사 운영에는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 학생들과 광주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등록 안내, 언어 통역, 동선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님을 돕고 있다. /김명수 기자

강기정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광주는 고대 마한의 활 문화부터 시작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양궁의 도시이자 하계유니버시아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라며 "전 세계에 평화의 올림을 전하고, 광주가 세계 평화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총회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세계양궁연맹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명수 기자

## 손흥민, '복중미 준비' 홍명보호서 골 노린다

손흥민, LAFC 이적 후 4경기 연속 출전 7일 미국·10일 멕시코 만나는 대표팀 합류 새로운 역할·주장 변경 가능성 등에 관심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의 핵심으로 발돋움한 공격수 손흥민(33)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과 함께 미국 무대를 누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7일 오전 6시(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9월 A매치 친선 경기를 갖는다. 이후 10일 오전 10시 미국 테네시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두 번째 친선전을 치른다. 지난 6월 A매치를 통해 복중미행을 확정한 한국은 이번 9월 A매치 친선 2경기를 통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이에 홍 감독은 지난달 25일 손흥민 등 최정에 26인 명단을 발표했다.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29·페넨르르트)이 부상으로 낙마해 서민우(27·강원FC)가 대체 발탁되는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은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중미를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다양한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화를 맞은 손흥민의 활용법에 관심이 쏠린다.

손흥민은 지난달 7일 10년 동안 활약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를 떠나 미국 LAFC로 이적했다. 당시 손흥민은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MLS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드컵 스포츠인 만큼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다.

이적 사흘 만에 데뷔전을 치러 페널티킥을 끝내는 등의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은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선 발, 첫 도움을 작성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FC델라웨어의 리그 원정 경기(1-1 무)에선 마수걸이 득점포까지 가동했다.

1일 샌디에이고와의 홈 데뷔전(1-2 패)에선 최전방 공격수로서 풀타임 소화하며 골대를 맞추는 등 여전히 날카로운 발끝을 자랑하기도 했다.

역전패를 당했다는 결과는 아쉬웠지만, 손흥민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측면 역할을 소화했던 토트넘 시절과 달리, 손흥민은 LAFC에서 최전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홍 감독 역시 이번 9월 A매치 명단 발표에서 손흥민을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로 분류했다.

대표팀에서도 최전방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홍 감독은 명단 발표 당시 "손흥민은 이미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던 적이 있다. 또 손흥민이 해온 측면을 다른 젊은 선수가 할 수 있게 됐다"며 "손흥민이 이제는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충분히 해줄 거로 생각한다"며 강한 신뢰를 보였다.

주전 자원으로서는 대표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건 계속되지만, 주장직을 이어갈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2018년부터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패적인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천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이)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전남도, 20~21일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2025 전남GT'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무료 관람... 6개 종목 스피드 축제

원슈타인 등 축하공연·가상레이싱·카트체험 즐길거리도 다채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2025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9월 20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다양한 레이싱 종목이 참여하는 행사로, 매 대회 기간 1만 1천여 명이 경주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선수와 대회 관계자 3천여 명은 86%가 타 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어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회 기간 지역 체류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 일요일에 집중됐던 개막식과 결승전을 분산해 토요일 개막식과 1개 종목 결승전, 일요일 5개 종목 결승전으로 경기 일정을 변경했다.

경주대회 뿐만 아니라, 원슈타인·마이티마우스의 축하공연, 가상레이싱, 카트체험, 미니카경주, 버블쇼 등 레이싱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특화된 관광객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남GT 대회는 다양한 모터스포츠 종목이 참여하는 스피드 축제다. 2시간 내구레이스인 '전남내구'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도요타 거주 레이싱 6000', 레이싱 전용차량인 '스포츠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타이크'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 선수 모집과 운영인력 확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경주장 진입 도로 풀 깎기, 서킷 노면 도색 등 경주장 환경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에 온힘을 쏟고 있다.

장영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지역주민과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호흡할 축제로서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주장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jng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그랜드 스탠드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 전남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대회서 19개 메달 획득

###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에 지도자들의 뛰어난 지도력과 열정 더해져

전남체육중·고등학교(교장 김형민) 레슬링부가 2025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2개(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대회는 제 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국의 학생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중요한 자리로, 전남체육중·고등학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최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승현(55kg)과 2학년 박태운(97kg) 학생이 그레코로만형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자유형에서는 김예찬(79kg)과 김동준(86kg)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은 각자의 체급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팀의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열정적인 코치진, 그리고 학생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결합되어 탄탄한 실력을 쌓아 온 노력과 훈련의 결실을 보여주었다.

전남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오는 10월에 개최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수들의 다짐은 앞으로의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전남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부의 성과는 단순한 메달 수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성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김형민 교장은 "본교 레슬링부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열정적인 코치진, 학생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 등 삼위일체에 힘입어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갔다. 열심히 노력해 준 학생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혜경 기자